

춤환경 변화의 바람 속에서

2005년 춤계 결산

김경애 | 무용평론가

2005년은 새로운 춤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작품이 없어, 그 수치를 잘 알 수는 없지만 피부에 와 닿는 공연의 수가 대폭으로 줄어든 느낌이다. 양적으로도 위축이 되었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저조했다. 새롭지는 않지만 기존의 경향을 답습하며 잘 만든 작품들도 손에 꼽기가 어려운 정도였다.

한해를 결산하는 연말이다. 한해를 정리할 때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지만, 무용이 공연행위를 근본으로 하는 예술분야인 만큼 무용가들의 작품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흐름을 유도하는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이 나왔느냐가 그해 결산의 관건이다. 기존의 공연형태를 비집고 등장하는 신경향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의 크기를 불문하고 이 현상으로 미래의 춤형태와 지난 과거의 춤모습을 가려볼 수 있는 계기가 때문이다.

지원금에 의존하는 춤공연 풍토

2005년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춤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작품이 없었다는 것에서 춤공연 활동이 매우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문장을 반복해서 들곤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그 수치를 잘 알 수는 없지만 피부에 와 닿는 공연의 수는 대폭으로 줄어든 느낌이다. 양적으로도 위축이 되었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저조했다. 새롭지는 않지만 기존의 경향을 답습하며 잘 만든 작품들도 손에 꼽기가 어려운 정도였다.

왜 이런 현상을 낳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 최근 몇 년 사이 관의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춤공연 풍토가 생겼다. 문화관광부의 무대 창작지원금과 과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이제 개인 공연은 하지 않는 것이 풍토로 굳어졌다. 자구 노력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자생적인 공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다. 이는 지원기구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공연의 수가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이다.

지원의 핵심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에 있던 상반기는 그 전환의 과도기의 분위기에 무용계도 따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 지원금이야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지원기구의 전향은 향후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것

이 피부에 닿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관망하는 분위기로 일관되고 있다. 따라서 작품활동을 고무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침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작품활동 및 관련된 춤문화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예술위원회의 춤분야 소위원회가 구성되긴 했지만, 그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비관행위도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잡히는 무엇이 나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상반기 예술위원회가 발족하기 전까지의 모든 지원과 관련된 건의사항들을 예술위원회가 발족된 뒤로 미루는 관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춤문화활동은 물론 작품 활동도 답보시키는 영향을 끼쳤다.

또 공연을 수적으로 위축시킨 것은 서울문화재단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아래 시행된 문화부의 창작활성화 지원금이다. 작년에 30여 단체가 받은 이 지원금의 수혜자가 금년에는 8개 단체가 되었다. 지원금의 총액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8개 단체를 선택해서 집중 지원했다. 이 단체들이 지원신청액 전액을 지원받아 공연을 했지만, 단일작품 역사상 최고 지원금인 1억 원을 받은 최테레사의 <아! 심청> 등이 최악의 작품을 발표해, 혁신을 꿈꾼 지원제도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낳았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지원금들은 대체로 중견 이상의 무용가들에게 돌아갔는데, 이들 작품 보다 소액의 지원금으로 공연되는 작품들이 보다 관심 가는 신선한 수작이었다. 이태상의 <각속도>, 김정아의 <시선>, 정영두의 <내가 가진 하늘>, 홍혜전의 일본 무용단과의 합작 공연 <팜프파탈> 등이 기성의 작품들을 물리치고 수작으로 기록되었다.

금년에 발표된 작품 가운데 기억할 만한 것들은 국립무용단에 초청을 받아 안무한 정은혜의 <미알 할미>,



정의숙 안무 <씻김 이천오>, 이숙재 안무 <신찬기파랑가>, 박인숙 안무 <마리아 콤플렉스>, 박명숙 안무 <거시기한 삶>, 류석훈 안무 <모순>, <굴>, 황희연 안무 <행장 III-미친 치마 콜라주>, 김정은 안무 <기워진 이브>, 손인영 안무 <안팎>, 박은화 안무 <튜닝 VII> 등을 들 수 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로 기록될 수 있다. 박명숙 안무 <거시기한 삶>은 연극연출가 김정옥 선생이 자연과 더불어 마련한 <얼굴박물관>에서의 야외이벤트로서의 새로운 작업이었다. 가장 활동을 많이 한 무용가는 무트댄스를 이끄는 김영희였다. 상반기 10주년 기념공연을 비롯해 쿠바, 멕시코 방문 공연 등 6개의 기획 무대를 연속으로 마련해 창단 10주년을 정리했다.

수년 동안 왕성하게 춤대중화를 리드해온 발레계가 위축된 것도 금년의 현상이다.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발레단 등 직업발레단들이 화제의 신작을 내지 못했다. 또 기존의 대중적인 레퍼토리 공연도 주역무용수들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레 제작

에 드는 막중한 제작비 부담 등 외적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금년 무용계의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주요 각 단체의 장들이 많이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한국무용협회의 이사장이 14년간 재임했던 조흥동에서 김복희 교수로 교체가 되었다. 현대무용가가 처음으로 이사장이 되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평단을 대표하는 기구 한국춤평론가회의 회장도 바뀌었고, 국립발레단장이 박인자 교수로 바뀌는 등 큰 흐름의 인적교체가 있었다. 단체장의 교체는 일단 세대교체라기보다는 분위기 변화에 일조하는 것이지만 일하는 방법 등도 달라진다. 이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수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세대교체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예술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무용분야 예술위원회 김현자 교수가 임명되었고, 소위원회와 더불어 관지원의 실질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만큼, 그 인적 구성 관계도 향후 무용계 판도 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와 더불어 지난 10월 발족한 '무용문화포럼'은 구 인맥 구성원들이 무용계를 이끄는 중추적인 인물들로 집단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무용계의 조직과 판도 변화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부분이다.

풍성한 해외공연과 서울무용제의 향방

금년에도 크게 관심을 부각시킨 것은 해외 공연들이다. LG아트센터가 한국을 주제로 피나 바우쉬에게 안무 위촉을 시켜서 만든 <러프 컷>이 상반기 무용계의 꽃이었다. 피나 바우쉬의 높은 이름과 LG아트센터의 기획력은 이 이벤트를 무용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도 가장 관심 가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기대했던 만큼의 작품이 탄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LG아트센터가 초청한 영국 무용단 DV8, 불쇼이



피나 바우쉬의 <러프 컷>

발레단, 새로 생긴 성남아트센터의 모나코발레단 등이 꼽히는 해외단체 공연들이다.

축제의 대명사인 모다페와 시댄스는 알찬 기획으로 그 성과(聲價)를 다했다.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유럽의 전위적 현대무용단들인 제롬 벨 등을 초청해 새로운 춤 경향을 보여주는 데 기여했다. 여름에 열린 부도페스티벌도 성과 있는 작업이었다. 서울공연예술제에서 무용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금년의 성과였다. 해외의 새로운 경향의 복합무대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안은미, 박호빈, 이경은 등 국내 안무가들의 초청공연도 관심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 문제는 시댄스와 서울공연예술제의 행사가 겹쳐있고 비슷한 종류의 합작공연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기획력의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올해는 문화부가 마련한 공연예술 마켓도 처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행사들이 10월에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열을 분별할 수 있는 작품의 잣대를 찾기 어려워졌다. 결국 아예 이 행사들을 동시에 무시해버리게 되는 무용계 풍토가 생기게 되었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서울무용제는 김복희 이사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얼마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심사위원의 구성 등 운영의 핵심사항들을 공개하고 투명

최근 몇 년 사이 관의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춤공연 풍토가 생겼다. 문화관광부의 무대 창작지원금과 과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이제 개인 공연은 하지 않는 것이 풍토로 굳어졌다. 자구 노력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자생적인 공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다.

하게 가져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초에 한국춤평론가회는 제주도에서 서울무용제와 전국무용제에 대한 운영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몇 가지 안을 지원기구인 문예진흥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예진흥원 측은 예술위원회로 바뀌고 있는 과도기에 있었고, 이 건의안들을 차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미루었다. 그런 한편 2004년부터 문예진흥원 자체의 평가기구에서 건의했던 서울무용제 발전기구 발족에 대한 안도 문예진흥원 사무국에서 받아들이는 듯한 제스처를 했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말 따로 실행 따로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면면을 보여준 셈이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건의되어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다.

지난 십수 년간 제 역할을 못한 서울무용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거론해야 할 이유는, 그 역사적 맥을 본다면 이것이 대표적인 축제로서 우리 시대의 대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화제작이 이 축제를 통해 한편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것을 협회가 하는 하나의 행사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다.

지역 무용계의 활성화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페스티벌도 많고 과거 서울무용제가 했던 역할을 대신하는 무용제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수 작품을 내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역사적 가치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된다. 그것이 아깝다.

올해 지역 무용계는 부산이 APEC 행사의 바람을 타고 활성화되는 기운을 보였다. 몇 년간 지역의 춤계가 대학세의 위축으로 기운이 빠지고 있는 실정에 행사를 타고 큰 춤무대들이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김은이 안무 <부산아리랑>을 비롯해 많은 작품들이 올랐다. 국가의 큰 행사 틈에서 춤은 말이 없는 예술의 장점을 활용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때 무용가들은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관심을 받게 되는데 자칫 행사를 위한 행사에 동원되어 오히려 그 후유증에 빠지는 사례도 많다. 어쨌건 APEC를 통해 관의 지원금들이 무용계에 혜택이 되었다는 점과 관이 춤예술도 중요 관심사에 두어야 한다는 자각을 했다는 점이 큰 소득일 것이다. 문제는 그 지속성에 있다.

제주도에서 전국무용제가 열렸고, 광주 임지형현대무용단의 이숙영 안무 <레밍, 턴>이 대상을 수상했다. 작은 섬의 무용부흥에 이 축제가 기여했으리라고 본다. 서울 근교인 고양의 어울림극장과 성남문화센터의 개관 등은 공연의 다각화에 기여했다. 특히 이 두 극장의 책임을 맡은 경연진이 서울의 공연장을 운영해본 이들이어서 수준 높게 이끌어간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우리 춤계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함께 이들 극장들에서 경영진의 열정을 보인 춤잔치들이 꾸며졌다. 육완순이 마련한 <한국현대무용뮤지엄> 기획공연은 우리 현대춤의 발전사와 공헌한 인물들을 돌아본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러브 토크〉와 〈도쿄 데카당스〉에서의
소통 부재의 삶

조혜정 | 영화평론가,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고립의 섬인 현대의 대도시에서 유명처럼 부유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외로움이 채워처럼 묻어난다. 외로움에 찌든 사람들 그러나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바삭한 메마름이 전해지는 영화, 이윤기 감독의 〈러브 토크〉와 무라카미 류 감독의 〈도쿄 데카당스〉. 현대인들의 고독감과 공허감을 영화를 통해 들여다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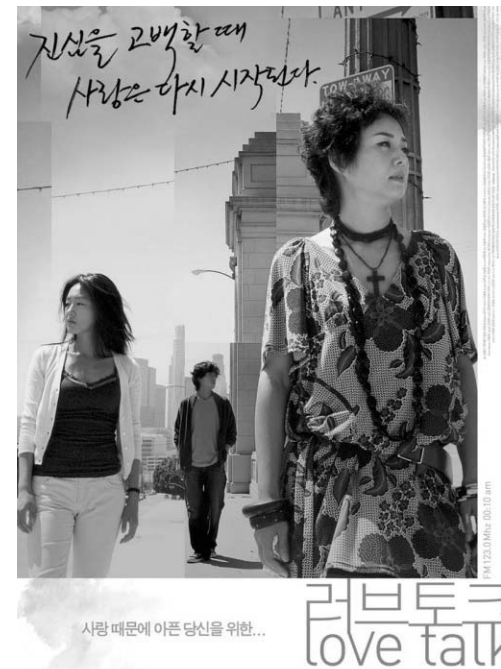
정현중 시인의 〈섬〉은 단순한 시구 속에 서걱거리는 슬픔과 참 아련한 그리움을 함축하고 있다. '섬'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섬'을 통하여 소통을 향한 몸짓을 발견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섬'마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고립의 섬, 유폐의 섬에는 외로움에 찌든 사람들 그러나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 그런 이들의 바삭한 메마름이 전해지는 영화가 있다. 이윤기 감독의 〈러브 토크〉와 무라카미 류 감독의 〈도쿄 데카당스〉이다.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두 편의 영화는 공교롭게도 LA와 도쿄라는 현대의 대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거대 도시를 유명처럼 부유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외로움이 채워처럼 묻어난다.

〈러브 토크〉- 사람, 그 외로움에 대하여

이 영화는 결국 소통에 관한 작품이다. LA라는, 한국인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국의 도시에서 스치고 포개지면서 만들어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면서, 각각의 섬에 고립되어 있는 이들의 외로움에 관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인물들은 다른 이들과 교감하지 못한다. 씨니(배종옥)는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일에 전념할 뿐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숍의 청원경찰을 밀어내고 한 집에서 기거하게 된 지식(박희순)에게도 잠시 다가서지만 마음을 열지 못한다. 영신(박진희)은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당당한 여성이지만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불안과 망설임으로 서성인다. 지식은 사랑을 놓아버리고 이국의 클럽에서 배회하며 낯선 도시의 공허함에 몸을 맡긴다.



이윤기 감독의 〈러브 토크〉

〈러브 토크〉의 인물들은 마치 식물과 같다. 그들은 뭔가에 닿을 때마다 움츠러드는 미모사를 연상시킨다. 이윤기 감독은 전작 〈여자, 정혜〉에서도 상처 받고 움츠린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었고, 김지수의 더 없는 호연으로 정혜의 '식물성'은 살아났다. 〈러브 토크〉의 인물들 역시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부로 찾아드는 이들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러나 〈러브 토크〉는 〈여자, 정혜〉보다 훨씬 대중적 화법을 동원한다. 주요 인물의 수만큼이나 뻗어 나가는 관계의 가지도 늘어난다. 〈여자, 정혜〉에 비해 수다스러워진 이 영화에는 도시라는 공간의 공허함과 난폭함이 자리 잡는다.

〈도쿄 데카당스〉- 섹스의 판타지에 매달리는 고독한 군상
도시의 공허함과 난폭함이 〈도쿄 데카당스〉에서는 좀

더 기이한 형태로 드러난다. 변태적인 성적 판타지를 제공하는 도쿄의 SM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인물(니카이도 미호)을 중심으로 역시 소통하지 못한 채 각자의 외로움에 갇혀 있는 인물군상들을 펼쳐 보인다. 이 영화에는 여자를 묶어놓고 SM(새도매저키즘)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며 여자에게 마약을 주사하는 남자, 가죽 코르셋에 하이힐을 신은 채 기묘한 자세로 호텔 방의 큰 창문에 매달려 네온으로 빛나는 도시의 밤풍경을 바라보게 하거나 갖가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시키거나 자신과 정부의 섹스를 지켜보게 하는 야쿠자 두목이 등장한다. 또 자기를 개구리 왕자라고 부르며 절정에 오르기 위해 목을 졸라달라고 부탁하는 남자, 후지산 근처 숲에서 강간당하고 죽은 여자의 역할을 해달라며 돈을 들이대는 남자, 여자 둘과의 트리플 플레이를 즐기며 개처럼 묶여서 기어 다니고 채찍으로 맞으며 피학을 즐기는 남자도 등장한다. 여기에 고급 콜걸로 가죽 코르셋을 입고 매저키스트 손님에게 채찍을 휘두르지만 자신의 현실을 지우고 싶어하는 여자(아마노 사요코)도 있다.

〈도쿄 데카당스〉의 인물들은 도시의 곳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욕망에 다가섬으로써 현대 대도시에서의 그들의 공허하고 외로움에 찌든 삶을 체험케 한다. 사람들은 뒤틀리고 변태적인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증명을 하려는 듯 보인다. 그들은 사랑을 꿈꾸면서 돈을 지불하고 성을, 관계가 아니라 성과 관련된 행위를 구매한다. 그들은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모르는 사람들이다. 관계를 통해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감을 위해 돈을 지불한다. 그 만족감의 실체는 실체가 아니라 판타지이다. 그래서 시체를 범하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섹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길들여 달라며 상대 여자의 오줌을 마시며 갖은 모욕을 청하던 매저키스트는 호텔